

안서 김억의 『동아일보』 소재 「花譜」 연구

김권동*

|| 차례 ||

- I. 들머리
- II. 안서 「花譜」에 나타난 형식적 특성
- III. 안서 「화보」에 나타난 꽃의 특성
- IV. 마무리

【국문초록】

안서 김억의 『동아일보』 소재 「화보」에서 형상화한 꽃은 그 자신이 정서적으로 인식한 꽃이다. 그는 소위 시가(詩歌)라는 것과 민중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화보」를 시로 창작한다. 그는 민중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서를 드러낼 詩形을 모색했다. 그의 「화보」는 민요의 정형성과 한시의 五言絶句나 七言絶句에서 찾을 수 있는 압운 형식을 결합한 詩形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즉 한 행이 음수율 7(4·3, 3·4)·5조를 바탕으로 하고, 네 행이 한 수(首)를 이루며 삼수(三首) 또는 사수(四首)가 한 편의 작품이 되는 시형을 고안한 것이다. 이것은 시에 대한 관습적 욕구와 시인이 지니는 개인적 자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서의 시는 구체성을 가지기보다는 관념에 머무르고 만다. 특히 상당 부분 꽃말(花語)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형상화하려 한 작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꽃말은 특정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류와 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꽃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안서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는 당시 지식인으로서 민중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서에 맞는 시를 창작하려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대체로 민중들과 친숙한 꽃을 찾아 그것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안서가 「花譜」에서 언급하는 꽃은 매화를 비롯하여, 안즌방이(제비꽃), 진달래꽃, 배꽃, 싸리꽃, 아네모네, 사쿠라, 포도꽃, 해바라기, 아카시아, 냉이꽃, 살구꽃, 민들레, 박꽃, 벚꽃, 코스모스, 복숭아꽃, 마름꽃, 부평초꽃, 우엉꽃, 상사꽃, 나팔꽃, 작약으로 총 23종이다.

안서는 꽃의 관찰을 통해 그 정서를 노래하기보다는 이미 자신이 가진 꽃에 대한 태도로 창작에 임하기에, 「花譜」의 작품은 구체적 보편성을 가지지 못한다. 안서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노래인 민요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중 밖에서 바라보는 태도로 민요적인 시를 창작하려 했다. 꽃은 대체로 그 생태와 관련해서 이름을 갖는데 그가 「花譜」에서 다룬 꽃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인식하고 있는 꽃 이름과 변별점을 찾는 작업이 된다.

주제어 : 안서(岸曙), 동아일보(東亞日報), 화보(花譜), 꽃말(花語), 시형(詩形)

1. 들머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수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세 가지 형태, 즉 ‘안대[抱]’, ‘알대[知]’, ‘아름[私]’으로 파악할 수 있다.¹⁾ ‘아름’²⁾은 두 팔로 둥그렇게 하여 안는 동작[抱]으로, 그 동작 과정이나 결과로 보아 원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안

1) 정호완, 『우리말과 상상력』, 정신세계사, 1994, pp.203~205 참조.

2) ‘아름’은 “알밤 > 알뵈 > 알음 > 아뵈 > 아뵈”와 같이 ‘알밤’에서 유래한다. 김수업, 『우리말은 서럽다』, 나라말, 2009, p.295 참조.

는 행위는 대상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알음[知]’과 관계가 있다. 자신의 품 안에 넣어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아름[私]’와 관련이 있다. 이들의 기본형은 ‘알-’이고, ‘알[聊]’은 생명을 간직하는 소중한 공간이며 둥근 모양이다. 덧붙여 앞이란 알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알을 깨고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다.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과 이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리 드러나면서도 그 어떤 공통점을 가진다. ‘아름다움’의 대표적 상징으로 ‘꽃’을 들 수가 있다. 꽃은 그 색과 자태, 그리고 그윽한 향기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에서부터 그 의미가 유추되어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한다. 그것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단지 상투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꽃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꽃 이름을 비롯하여 품종이나 피는 시기에 따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 꽃에 대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즉 꽃을 통해 감추어진 자신의 내밀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다.³⁾

우리 선인들은 꽃 자체의 자연적 아름다움보다는 꽃이 가지는 상징적인 가치를 더 존중하였다. 즉 꽃의 색깔과 생김새, 또는 향기와 같은 물리적 기준보다는 인간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꽃의 품격을 정하고 그 격에 따라 꽃의 호오(好惡)로 삼은 것이다.⁴⁾ 이런 경우, 자신의 경

3)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밖으로 자연의 변화를 본받고, 안으로 마음의 근원을 체득해야(外師造化, 中得心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파 지음, 유중하 외 옮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 아름다움을 비추는 두 거울을 찾아서』, 푸른숲, 1999, p.36.

4) 강희안 지음, 이병훈 옮김, 『화목구등품제』, 『양화수록』, 을유문화사, 2010, pp.155~168.

험 세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타인의 경험 세계를 비판 없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 청오(靑梧) 차상찬(車相贊)의 「花譜」는, 꽃의 내력과 꽃의 명인, 꽃과 관련한 우리의 지명과 인명, 이와 관련한 놀이와 일화, 꽃에 관한 속어 및 이어(俚語), 그리고 꽃과 관련한 우리의 가요를 소개한다.⁵⁾ 그는 「譜序」에서 “꽃 자체는 하등의 비애와 우탄과 희열이 다 없을 것”이고 “자연으로 피고 자연으로 떨어지고 자연으로 열매 맺어서” “영원무궁토록 순환불이하여 자기생생의 진리만 표현할 뿐”이라고 한다.⁶⁾

한편 안서 김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꽃을 읊은 노래가 많았기에, “소위 시가라는 것과 민중과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花譜」를 운문으로 창작한다고 밝히고 있다.⁷⁾ 안서는 속가와 순정시가(純正詩歌)의 중간적 태도에서, 노래가 민중에게 얼마나 이해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는 「花譜」를 연재하기 바로 직전에, “격조시형론소고”라는 제목으로 격조시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적이 있다.⁸⁾ 자유시의 내재율은 산문과 혼동되기 쉬워서 시와 산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위험이 있기에, 내재율을 버리고 격조시형을 취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안서는 민요와 시조 가운데 ‘원시적 감정’에 해당하는 민요를 격조시형으로 삼았다.⁹⁾ 그 연장선에서 안서는 한시의 압운 형식을 빌려 꽃을 노래

5) 차상찬, 「화보」, 『개벽』 제68호, 개벽사, 1926, pp.85~93 참조.

6) 차상찬, 위의 책, p.85.

7) 『동아일보』, 1930. 2. 1., 4면 7단.

8) 안서는 『동아일보』, 1930. 1. 16.~1930. 1. 26.(11회 연재) 및 1930. 1. 28.~1930. 1. 33.(3회 연재), 총 14회 연재하면서 “土居氏文學序說”에서 얼마만큼 암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9) 구인모, 「김억의 격조시형론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2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2, pp.267~268 참조.

하는 시형(詩形)을 실험한다. 안서는 이론보다는 작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론을 가졌기에,¹⁰⁾ 시를 형식적으로 실험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가 곧 「花譜」인 것이다.¹¹⁾ 즉 안서는 「花譜」를 통해 우리 시에서 운(韻)의 가능성을 창작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안서 김억의 『동아일보』 소재 「花譜」를 대상으로, 그가 꽃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그 형식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가 다룬 꽃들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꽃은 대체로 그 생태와 관련해서 이름을 갖기 마련인데, 안서가 「花譜」에서 그려내는 꽃은 그 자신이 정서적으로 인식한 꽃이다. 그렇기에 그가 언급한 꽃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는 꽃과 그 변별점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II. 안서 「花譜」에 나타난 형식적 특성

일반적으로 화보는 꽃의 이름과 품종, 그리고 피는 시기 따위를 적어 놓은 책으로, 대체로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그런데 안서는 「화보」를 피는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흥에 따라 쓰게 된 것임을 미리 밝히고 있다.

10) 김억, 「이론보다도문저작품을」, 『大潮』 3, 1930. 5. 15.

11) 안서의 '격조시형론'은 전통 율격의 후퇴가 아닌, 자유시 형성과정에서 모색된 결과로, 외형적인 보수성과 달리 근대적 시 의식의 소산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안서가 '격조시형론'에 관한 논의를 한 이후, 창작된 「花譜」의 공통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광명숙, 「김억의 '조선적 시형'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55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p.263~290 참조.

나는꽃을 客觀的으로 쏘는 主觀的으로, 쏘어쥬체에는 問答體의 方法으로 노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꽃에 쏘아서 各各 그 表現方法이 다르지 아니할수업는것은勿論이외다. 그리고 어대까지든지 感情의態度를 일치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중략)…… 그러기에 「花譜」가詩歌로의 第二義의意味를가지게되지아니할수업는것은 免할수업는事情이외다. 이왕이면 철에 쏘하봄에봄꽃을順序있게 노래할것이나, 散文이아니고 韻文인만큼, 억지로하기도어렵은點이 적지아니하여 順序업시, 노래하게된 것을 미리 말씀해둡니다.¹²⁾

안서는 “꽃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다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객관적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즉 객관적이라는 시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민중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려는 시도로 시가를 창작한 것이다. 일찍이 안서는 번역시집 『잃어진 진주』(1924년) 서문에서 시를 분류하면서 ‘민요시’를 설정하고 그 이론을 제시한 적이 있다.¹³⁾ 그가 마련한 민요시는 민요와 같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관념에 머문다. 그의 민요시는 서구 문예사조인 상징주의가 들어오면서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사이에서 모색된 것으로, 시를 형태 또는 언어의 형상화를 통한 예술로 보고자 했던 그의 창작 의지와 관련이 있다. 즉 “조선어의 성질과 조선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근대적 쏘는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일된 시형이”¹⁴⁾ 없었기에, 안서가 이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1930년 2월 1일부터 1930년 4월 1일까지 『동아일보』에 총 23회 게재한 안서의

12) 『동아일보』, 1930. 2. 1., 4면 8단. 이후에 언급하는 김억의 「花譜」 관련 출처는 다음의 “안서 김억의 『동아일보』 소재 「花譜」의 목록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13) 김용직, 『김억작품집』, 형설출판사, 1982, pp.166~178 참조.

14) 김안서, 「작시법(五)」, 『조선문단』 제11호, 조선문단사, 1925. 8., p.82.

「화보」를 목록화한 것이다.

〈표 1〉 안서 김억의 『동아일보』 소재 「화보」

발간일	제목	내용	비고
02월 01일	화보(花譜)	꽃을 노래하기 전, 작자로서의 인사말	산문
02월 02일	一. 매화(梅花) 二. 안즌방이	매화 - 기(氣)의 고결(高潔)함 안즌방이 - '사랑'과 '겸손' 그리고 '정조'의 뜻	화보2 산문과 시
02월 03일	三. 진달래꽃	진달래와 척촉(躑躅)은 다른 것	화보3 산문과 시
02월 05일	배꽃 (花語·潔白한愛情)	돌아가신 누님에 대한 그리움	화보4 시
02월 06일	짜리꽃 (花語·愁思)	웃음뎀 얼굴에 가득한 수심	화보5 시
02월 07일	아네모네 (花語·見棄[남의 버림을 받음])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마음	화보5 시
02월 08일	사쿠라	고향 '시찌시마'로부터 건너온 외로운 마음	화보6 시
02월 09일	포도꽃	취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토로	화보7 시
02월 10일	해바래기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소식에 대한 안타까움	화보8 시
02월 13일	아카시아 (花語·友情)	친구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화보9 시
02월 15일	냉이꽃	길 밖에 퍼서 모두 밝히는 냉이꽃에 대한 안타까움	화보10 시
02월 16일	살구꽃 (花語·懷疑)	풀 길 없는 열여덟의 心思	화보11 시
02월 22일	문들레	문들레의 心性에 대한 형상화	화보12 시
02월 23일	박꽃	변함없는 님에 대한 마음	화보13 시

02월 26일	벚꽃	살림과 살 곳을 위하여 벚꽃에 대한 위로와 벚꽃의 변함없는 마음	화보15 시
02월 27일	코스모스	쓸쓸한 가을바람에 외로이 지는 코스모스	화보16 시
02월 28일	복숭아꽃	자신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화보17
03월 01일	마름꽃	물에 나서 물에서 사는 모양을 노래	화보17 시
03월 03일	浮萍草꽃	고향을 잃고, 뿌리없이 뜬 풀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	화보17 시
03월 08일	우영꽃 (花語-固執)	삼십 평생 밟아오던 길, 변함없이 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드러냄.	화보20 시
03월 13일	相思꽃	있 지자 꽃이 피어 만날 수가 없지만 서로가 그리는 정	화보21 시
03월 29일	나팔꽃	짧은 몸, 짧은 목숨이지만 가슴에 담은 '永遠'을 노래	화보22 시
04월 01일	芍藥 (花語-羞恥)	굴욕적인 삶일지라도 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겠다는 노래	화보23 시

안서는 『동아일보』에 「화보」를 총 23회 실었는데, 그중에서 1회는 산문만을 실었고, 2~3회는 산문과 시를, 그 이후부터는 시만 게재한다. 1회에서는 꽃을 노래하기 전, 작자로서 인사말을 전하고자 산문만 게재한다. 2회에서는 산문과 함께 1회에 신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 ‘매화’를, ‘안즌방이’와 함께 게재한다. 그리고 3회에서는 ‘진달래꽃’에 대한 산문과 시를 각각 실고, 그 이후 4회부터는 19회에 걸쳐 시만 게재한다. 발간일은 하루 단위로 일정하던 때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불규칙하다. 그리고 「화보」에 매긴 숫자도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이다. 이것이 편집과정에서 비롯된 오류인지, 아니면 안서가 원고를 늦게 써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안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터브만 잡으면 댕바람에 작품화시키는 다산성의 시인이었다”¹⁵⁾라는 지적

으로 봐서 그의 작품은 치열한 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시의 내용과 형식을 유형화하여 창작한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이 그 형식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내용으로 일관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서는 「화보4」의 ‘배꽃’이나 「화보5」의 ‘싸리꽃’과 ‘아네모네’, 「화보9」의 ‘아카시아’와 「화보11」의 ‘살구꽃’, 「화보20」의 ‘우영꽃’, 그리고 「화보23」의 ‘芍藥’에서 각각 ‘꽃말(花語)’을 언급한다. 꽃말을 엮두에 두고 창작한 것은, 아무래도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1930년 2월 2일 『동아일보』에 「화보2」와 동일면에 「작시법」을 게재하는데, 이러한 시형을 통해 다양한 운(韻)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부는바람 그대로 노래가되고
저녁구름 제뱃을 어이감찰고
山넘어 살구꽃이 냄새조타고
씩거선 안될것이 시두는것을



어이할는고 힘으로는 못할걸
못보았나, 바람이 노래불으면
습풀들은 춤추고 바다엔물걸
서로얼려 얼키고 쉼노는것을.



어씨자고 그대는 줄을올렸노
싱동댕동 거문고 소리곱흔걸
놓흔曲調 힘베여 내일길업고

15) 『문학사상』 13호, 문학사상사, 1973. 10.

한갓되히 거문고 줄만튀는걸.



울에엔 山이울고 여울엔여울
 物件마다 그림자 썰아도는걸
 울림바든 그대로 그대울프라,
 조흔靈도 잠깨여 귀기울일걸.

김안서의 「작시법(押韻四首)-蘆風에게」 전문¹⁶⁾(밑줄 필자)

위 「작시법」에 나타난 시형은, 꽃과 관련한 시 23편의 형식적 바탕이 된다. 위에서 안서는 ‘압운사수’라고 붙이고 있는데, 이 압운사수가 모여서 작품 한 편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花譜」도 시행(詩行)은 음수율 7(4·3, 3·4)·5조를 기반으로,¹⁷⁾ 네 행이 한 수(首)가 되면서 ‘압운삼수’가 작품 한 편이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작품으로는 「화보2」에서 ‘매화’와 「화보7」의 ‘포도꽃’인데, 이 작품들도 7·5조에 기반으로 4행이 한 수가 되는데, ‘압운사수’가 한 편이 되는 것이다. 형태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수(首)는 연(聯)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화보2」에서 ‘매화’는 12행과 4행 사이에 행간을 띄우고, 「화보2」에서 ‘안즌방이’는 4행과 8행 사이를 띄우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모두 4행을 기준으로 띄우고 있다. 안서가 4행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시는 한구의 글자 수가 5자인 五言과 7자인 七言으로 나뉜다. 곧 五言은 5자가 하나의 句를 이루고, 七言은 7자가 하나의 句를 이루는 형식이다. 그리

16) 김안서, 「작시법」, 『동아일보』, 1930. 2. 2., 4면 5~6단.

17) 23편의 작품에서 「화보5 - 싸리꽃」과 「화보6 - 사꾸라」, 그리고 「화보14 - 박꽃」과 「화보17 - 복숭아꽃」, 이 4편은 8·5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 한 수가 4구로 이루는 형식을 絶句라고 하고, 한 수가 8구로 이루는 형식을 律詩라 한다. 비록 한시의 五言이나 七言은 아닐지라도 안서는 이러한 압운의 형식을 염두에 두고 「花譜」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시에서 五言絶句와 七言絶句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오언절구와 칠언절구의 운자 형식

오언절구	칠언절구
○○○○△ 기구	○○○○○○◎ 기구
○○○○◎ 승구	○○○○○○◎ 승구
○○○○△ 전구	○○○○○○○ 전구
○○○○◎ 결구	○○○○○○◎ 결구
* ○표는 보통 한자가 놓이는 자리이고, ◎표는 운자, 곧 압운하는 자리이며, △표는 운자가 놓일 수도 있고 운자가 아닌 한자를 쓸 수도 있는 자리이다.	* ○표는 보통 한자가 놓이는 자리이고, ◎표는 운자, 곧 압운하는 자리이다.

안서는 7·5조의 음수율을 바탕으로, 한시에서 압운의 개념을 빌려 새로운 시형을 모색한다. 대체로 같은 어음(語音)이 운(韻)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행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같은 어음이 균등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서가 하나의 시행을 7·5조를 바탕으로 한 것은, 균등한 시간적 간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압운이라는 말과 율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행(詩行)에서 운(韻)과 율(律)은 실제 구현되는 소리이고, 규칙성과 반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격이 소리의 시간적 질서 위에서 나타나는 거리의 반복임에 비해서 압운은 위치의 반복이라는 점이 다르다.¹⁸⁾

18) 김대행, 「서: 운률론의 문체와 시각」, 김대행 편, 『운율』, 문학과지성사, 1990, p.13.

시에서 소리의 반복은 루이스(C.D. Lewis)의 지적대로, “낮선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인식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이유나 주장을 잠재워주는 대신에, 그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¹⁹⁾ 우리 시가를 비롯한 현대시에서 압운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시인들이 압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서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로 작용하는 소리의 반복현상을 찾을 수 없기에, 그것을 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가 학계에 지배적이다.²⁰⁾ 이를테면 각운의 경우, 우리말은 교착어이기에 조사나 접미사를 동반하며, 언어 구조상 서술어가 끝에 위치한다. 그래서 일정한 소리가 시행의 끝에 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이 경우 운의 효과를 충분히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²¹⁾ 이런 점에서 안서는 압운을 고려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벗꽃아, 가이엣다 어이할는고.
 제살림 저살곳을 모다뺏기고
 쫓겨나니, 넓은들 갈곳이엣데.
 오늘도 외론몸에 날은점을고.

19) C. D Lewis, *Poetry for You*,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pp.36~37.

20) 김대행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을 韻文으로 쓰는 대신에 律文으로 쓰고 있다. 김대행, 「압운론」,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pp.33~58.

21) 허미자는 영시의 압운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현대시에서 압운을 고찰하는데, 구문상의 문제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서구의 시와 같이 압운의 발달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미자, 「현대시의 압운에 대하여: 한국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0, pp.105~146.

집으로는 두家門 소박을마자
 偕老百年 中年에 갈린심이라,
 바람아 하늘하늘 나를달랜다,
 아모런들 이心誠 變할줄아나.

돌쳐못볼 이맘을 불상타말게,
 가는歲月 한때는 맑아질것을.
 꽃이엷서 구름을 허맨다말게,
 저녁세엔 山마루 안자선다네.

김안서의 「화보15 - 벚꽃」 전문(밑줄 필자)

위에서 첫 번째 수에 해당하는 “~ 어이할는고” “~ 모다쌌기고” “~ 갈곳이엷데” “~ 날은점을고”는 한시 칠언절구에서 운자를 둔 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두 번째 수에 해당하는 “~ 소박을마자” “~ 갈린심이라,” “~ 나를달랜다,” “~ 변할줄아나.”는 같은 글자가 없다. 굳이 한시 형식을 빌려 운자를 말한다면, 모음 ‘아’가 공통이 되어 오언절구의 운자와 유사하다. 세 번째 수에 해당하는 “~ 불상타말게,” “~ 맑아질 것을.” “~ 허맨다말게,” “~ 안자선다네.”는 위에서 언급한 한시 형식에 엄격히 맞지는 않지만 같은 글자와 유사음을 두어 압운의 효과를 내려고 했다. 안서의 「화보」는 이렇듯 韻字를 염두에 두고 창작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안서가 「花譜」 이전에 발간한 시집 『岸曙詩集』에서 같은 제목의 「살구꽃」과 「花譜」 이후에 발간한 『岸曙民謠詩集』의 「살구꽃」을 비교할 수 필요가 있다.²²⁾

22) 꽃과 관련한 『岸曙詩集』의 작품은 「살구꽃」을 비롯하여 「海棠꽃」, 「나리꽃」, 「코스모스」 그리고 詩譯 「梅花」와 「장미꽃」으로 6편이 있는데, 「花譜」와 같은 제목으로 달리 표현된 작품은 「살구꽃」과 「코스모스」이다. 참고로 『岸曙詩集』에 수록된

봄바람 하늘하늘
 넘나드는 담안에
 연분홍 살구꽃이
 송이송이 피엿소

봄바람 하늘하늘
 틀고매는 事情이
 연분홍 살구꽃이
 송이송이 썰리오.

김억의 「살구꽃」 전문²³⁾

운(韻)은 시와 산문을 구분하는 변별적 요소이지만 영시를 비롯하여 근대 시가 대부분 운이 없는 것을 발견한 주광잠은 “음률이 있는 것은 시이며, 음률이 없는 것은 산문”이라고 변형한다. 그러면서도 분석을 통한 시와 산문의 형식적 구분은 부인한다.²⁴⁾ 『岸曙詩集』의 「살구꽃」은 7음(3·4조나 4·3조)을 중심으로, 반복을 통해 리듬을 형성한다. 반복은 시 창작의 방법이자 원리로서, 무엇이 반복되는가에 따라 음운의 반복이나 어휘의 반복, 구문 및 문장의 반복, 그리고 시행 및 연의 반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살구꽃」은 시행과 연의 길이와 그 구조가 유사하다. 아울러 1, 2연의 “봄바람 하늘하늘”과 “연분홍 살구꽃이”는 구문이 반복되고, “송이송이”라는 의태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시의 운에 해당하는 음운의 반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코스모스」는 다음과 같다. “하이한 코스모스 혼자피여서 / 늦가를 찬바람에 시달
 니우네. / 불서렵은 그景狀 하도에연해 / 손잡으니 가엽다, 꽃지고마네.” 김안서,
 『안서시집』, 1929, 한성도서주식회사, p.141.

23) 김안서, 위의 책, p.101.

24) 주광잠, 정인홍 역, 『시론』, 동문선, 2003, pp.150~171.

반해 「화보11 - 살구꽃」을 살펴보면,

어이하야 살구꽃 머리숙엿노
지내가는 바람은 제노래하고
소삭이는 나비말 누가알을고
혼자로서 제생각 의심이로세.

열여덟 이心思는 풀길이업고
이世上을 꿈속에 지내가는걸
어째자고 자네는 나를깨우노
뒤저으면 맑은물 흐리는것을.

어둔밤을 누라서 검다니르노
빛나는해 자네는 웨밝다는고
物件마다 제빛이 부터잇는걸.
내무어라 이날에 내빛밭쓸고.

김안서의 「화보11 - 살구꽃」 전문(밑줄 필자)

두 번째 수에 해당하는 “~ 풀길이업고” “~ 지내가는걸” “~ 나는깨우노” “~ 흐리는것을”은 한시 오언절구에서 운자를 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에 해당하는 “~검다니르노” “~웨밝다는고” “~부터잇는걸” “~내빛밭쓸고”는 한시의 칠언절구에서 운자를 둔 것과 유사하다. 「花譜」 이후, 『岸曙民謠詩集』에 실린 작품을 살펴보면,

하늘하늘
봄바람이
넘나드는 담안에
연분홍 살구꽃이

송이송이 피엿소.

하늘하늘
봄바람이
틀고매는 사정에
연분홍 살구꽃이
송이송이 떨리오.

김안서의 「살구 꽃」 전문²⁵⁾

위 작품은 『岸曙詩集』에 실린 작품과 유사하다. 단지 1연과 2연에서 “하늘하늘 봄바람이”라는 시행을 “하늘하늘 / 봄바람이”와 같이 행갈이를 할 뿐이다. 이렇듯 안서는 같은 작품을 두고도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한다. 다음 작품은 제목을 달리하지만 「살구꽃」과 유사한 작품이다.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뜬니다.

연분홍 살구꽃이 하도반가워
나비는 너홀너홀 춤출니다

봄바라 하늘하늘 넘노는길에
연분홍 송이송이 반겨들니다

연분홍 살구꽃이 바람에지니
나비는 울며울며 돌아섭니다.

김안서의 「연분홍송이송이」 전문²⁶⁾(밑줄 필자)

25) 김안서, 『안서민요시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48, pp.79~80.

1연과 3연에서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길에”가 반복되고, 1연과 4연에서 “연분홍 살구꽃이”가 반복된다. 아울러 2연과 3연의 “연분홍 송이송이”가 반복된다. 그러면서 각 연마다 “~입니다”가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

안서는 『동아일보』의 「화보」 연재를 통해 꽃을 의식적으로 형상화하려 했다. 「화보2」와 「화보3」에서는 ‘매화’와 ‘안즌방이’, 그리고 ‘진달래꽃’에 대해서는 산문과 시를 함께 게재하였다. 산문을 통해 그가 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꽃에 대한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간간이 밝히고 있는 ‘꽃말(花語)’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보4」에서부터 「화보22」에 이르기까지는 시만 게재하는데, 결국 이것은 그가 내세운 ‘민요시’로 귀결된다. 즉 그의 ‘민요시’는 7(8)·5조를 중심으로, 4행을 일수(一首)로 하고 삼수(三首) 또는 사수(四首)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되는 시형을 고안하면서 실험적으로 한시의 압운을 적용하려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존의 꽃에 대한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작품의 성격도 관념에 머물고 만다. 무엇보다 좋은 작품은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형식 그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되는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²⁶⁾ 이런 점에서 안서가 시도한 「花譜」의 시형은, 비록 시대적으로 퇴행적인 양상을 드러낸 것일지라도 이것은 우리 정서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시형을 마련하고자 한 과정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6) 노자영, 『신인문학』 제1집, 청조사, 1934. 7., pp.58~59.

27)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학지성사, 1996, p.22.

III. 안서 「화보」에 나타난 꽃의 특성

안서 김억이 「花譜」에서 언급하는 꽃은 매화를 비롯하여, 안즌방이(제비꽃), 진달래꽃, 배꽃, 싸리꽃, 아네모네, 사쿠라, 포도꽃, 해바라기, 아카시아, 냉이꽃, 살구꽃, 민들레, 박꽃, 벚꽃, 코스모스, 복숭아꽃, 마름꽃, 浮萍草꽃, 우엉꽃, 相思꽃, 나팔꽃, 그리고 芍藥으로 총 23종이다. 안서도 밝히듯이 “이왕이면 철에 따라 봄에 봄꽃을 順序 있게 노래할 것이나, 散文이 아니고 韻文인 것만큼, 억지로 하기도 어려운 점이 적지 아니하여 順序 없이, 노래하게 된 것”²⁸⁾이라고 그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즉 그가 꽃을 소재로 시를 창작한 「花譜」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옛 선비들은 화품, 즉 꽃의 품격과 운치를 논의하고 이에 따른 등수를 매겼다. 이를테면 『養花小錄』의 부록에 실린 『花庵隨錄』의 「花木九等品第」²⁹⁾에 언급된 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서의 「花譜」에 등장하는 공통된 꽃은, 매화(梅, 1등)를 비롯하여 작약(芍藥, 2등), 포도꽃(葡萄, 4등), 복숭아꽃(桃花, 5등), 진달래꽃(杜鵑, 6등), 살구꽃(杏花, 6등), 그리고 배꽃(梨, 7등)과 같이 7개 종류뿐이다.³⁰⁾ 이외에 그가 다룬 꽃은 안즌방이(제비꽃), 싸리꽃, 아네모네, 사쿠라, 해바라기, 아카시

28) 『동아일보』, 1930. 2. 1., 4면 8단.

29) 원예학자들은 을유문화사에서 펴낸 『양화수록』에 『화암수록』이 부록으로 실린 것을 보고 이를 강희안의 저술로 생각해왔고, 시조 연구자들은 『교본역대시조전서』에 따라 화암(花菴) 송타(宋陀, 1567~1597)의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한 오류를 정민은 지적하고 『화암수록』의 저자가 유박임을 밝히고 있다. 유박 지음, 정민 외 5인 옮김, 「조선 후기 원예문화와 『화암수록』」, 앞의 책, pp.12~25 참조.

30) 강희안 지음, 이병훈 옮김, 「화목구등품제」, 『양화소록(개정판)』, 을유문화사, 2010, pp.155~168.

아, 냉이꽃, 민들레, 박꽃, 벚꽃, 코스모스, 마름꽃, 부평초, 우엉꽃, 상사꽃, 나팔꽃으로 총 16종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3회에서는 먼저 산문으로 꽃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시를 짓는다.

이슬뿜힌 이른봄날 길가에나나무그늘알에 한송이의 자주빛꽃이 가늘은 줄기 싹테 피여 고개들숙이고섰는양은 조금도 그自身的고은양은 자랑하는 빛이 보이지아니할 뿐아니라 쓴世上의 영화가튼 것을 그대로 내여보리고 고요히 깨끗한살님을외팔은곳에서求하라는 高貴한 佳人의心情과갓다는 感을禁할수가업는것이외다 그리고 그보드랍고 곱은춤내는 깨끗하고 아름답은봄날의 들을 숨숨히생각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넓은들에서이꽃을쓰더 꽃싸움을하며 날이저물어가는것을니저버리는것도 이째문이겟지오 ‘사랑’과 ‘검손’과 ‘貞操’의 뜻으로이꽃을씁니다

누구한테 이내속 모다바칠고
 자네한테 바침세, 안즌방이야
 그늘알에 외로히 고개숙이고
 너무엇을 그다지 생각하는고

수집다 말을말게, 인연인것을
 몰으갓다, 지낸날 나하고자네
 풀바테서 꽃쓰더 싸우든 것을
 그제부터 자네를 나는못넋네
 누릴사람 영화를 누리라구료
 깨고나면 다가치 헛된꿈인걸
 자주치마 이몸을 우습다마소
 자네위해 이생을 사는게구료

김안서의 「화보2, 二. 안즌방이」에서

위와 같이 산문으로 ‘안즌방이’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시로 형상화한다. ‘얹은뱅이꽃’은 지역마다 달라서 ‘민들레’나 ‘제비꽃’, 또는 ‘채송화’의 방언으로 사용한다. 안서는 「화보12」에서 ‘민들레’를 창작하였고, 위 산문에서 “한 송이 자줏빛의 가는 줄기 끝에 피여 고개 들썩이고 선 모양”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즌방이’는 ‘제비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제비꽃’의 꽃말이 ‘사랑’과 ‘겸손’, 그리고 ‘정조’를 의미한다. 안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익히 보았거나 찾을 수 있는 꽃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반인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진달래’와 ‘척촉(躑躅, 철쭉)’을 구별한다.

봄날의 싸스한山기슭에 진달래의연분홍꽃! 술과香油(잇기는若干은잇지
만은)가업슨탓인지 별과나비는 오지아니하고 지내가는 바람에 그대로지고
마는것을 불세에는 어째그런지 男便에게 소박마즌 아낙네가튼 身勢라는
생각을 禁할수가업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結實은못합니다 그러나 봄날의山
기슭을아름답게썩여주는 것은 흥성스럽은비즌업슬망정 진달래의 연분홍
꽃이외다 진달래와躑躅과는다를것으로 진달래가 躑躅의 一種인 것은 말할
것도 업는일이외다

寧邊엔 藥山東臺 외진달래야
그저지기 설다고 탄식말아라.
야즐아진 바위에 안즌해벗도
참아 발길안몰아 바재노란다

가이업다 진달래 반겨웃어도
별과나비 그대로 지내가누나
드나드는 물질엔 배가들와도
無心코나 자네는 웨안들리노.

아들나코 짚길려 살아보기는
 아모래도 틀린걸 그대로살자.
 山넘어 모란꽃도 혼자살드라
 앞딤다 봄바람은 웨또달랠가

김안서의 「화보2 - 진달래꽃」에서(밑줄 필자)

위에서 밑줄 친 부분처럼 진달래꽃은 “꿀과 향내가 없어서” 벌과 나비가 오지 않고, 그것은 곧 “남편에게 소박맞은 아낙네가튼 신세”를 연상케 한다고 한다. 더구나 진달래꽃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진술은, 남편에게 소박맞은 아낙네가 아들과 딸 같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처지로 본 것이다. 그런데 진달래꽃은 열매를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10월에 길이 약 2cm인 원통형의 삭과(蒴果)가 달려 익기 때문에 끝부분에 암술대가 남는다. 물론 이 경우, ‘진달래꽃’을 일상어가 아닌 정서적인 시어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서는 진달래꽃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진달래꽃」을 창작한 것이다. 실제로 진달래와 철쭉(躑躅, 철쭉)은 피는 시기가 다르다. 진달래가 먼저 피고, 진달래가 시들 무렵에 철쭉이 핀다. 다음 시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杜鵑花 어제 디고 躑躅이 오늘 피니
 山中繁華야 이 밧긔 또 이실가
 흥호나 流水에 흘러 消息 알가 호노라 右 山頭躑躅
 杜鵑花已開落, 躑躅了繼發, 山中春色, 孰與汝比, 祇恐浮流水傳消息.³¹⁾

31) 이 작품은 관곡(寬谷) 김기홍(金起泓)의 시조 「관곡팔경3」이다. 「관곡팔경」은 『관곡선생실기』에 국문시가와 한역시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고, 『관곡선생문집』에는 국문시조는 생략되고 한역시가만 실려 있다고 한다. 작품은 조지형, 「관곡 김기홍의 시가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 p.64에서 재인용.

흔히 진달래는 ‘참꽃’이라고 하고 철쭉을 ‘개꽃’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개’란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접두어로 사용되는데, ‘진달래’는 먹을 수 있고 ‘철쭉’은 먹을 수 없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진달래의 겨울 눈은, 가까이서 보면 청초하고 가련한 모습이다. 진달래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는 음식식물이다. 그렇지만 매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즉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피기에,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탈속의 상징성을 가진다. 한없이 부드럽고 가냘프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그것은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통해 시적으로 승화시킨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인고의 마음이 완벽하리만큼 깊고 맵고 서럽게 표현”³²⁾한 것이다. 이렇듯 진달래꽃의 생태는 수많은 전란과 재난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끈질기게 살아온 우리 겨레의 기질과 닮았다.

꽃에는 희로애락의 정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 지는 꽃의 생태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꽃에 대한 관찰에 있다. 강희안은 꽃을 기르는 뜻에서 “비록 한 포기 풀이나 한 그루의 나무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것들의 지닌 이치를 생각하여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앎을 두루 미치지 앎이 없고 그 마음을 꿰뚫어 통하지 앎이 없게 되면 나의 마음이 자연히 만물에 머물지 않고 만물의 밖에 뛰어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³³⁾ 꽃이나 나무를 기쁨으로써 터득하는 이치야말로 공부의 일환이다. 이렇듯 꽃과 나무를 기르는 일은 물론이겠지만 저절로 피고 지는 꽃을 관찰하여 그로부터 정서를 얻는 일도 마찬가지다. 안서의 「싸리꽃」이나 「냉이꽃」, 「문

32)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4, p.77.

33) 강희안 지음, 이병훈 옮김, 앞의 책, pp.141~142.

들레」 등은 심고 기르는 방식이 아닌, 저절로 핀 꽃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은 정서이다.

이름모를 山골작에 나언제난노,
 째다할가 하얀너름 날도점을고
 내世上의 새론꿈은 닉으려할제
 고희레라, 맑은시내 얼굴어렸네.

송이송이 분홍비춘 이내맘이라,
 아침이슬 저녁노을 모다깃본걸.
 어이하자, 갈바람은 나를달랠나.
 가튼맘도 갈갈려면 알수업는걸.

아름다운 世上에도 설음잇는걸
 누구라서 쓰린運을 모르노라노.
 웃음씩은 이내얼굴 엠브다해도
 말을마소, 속엔愁心, 자네모르오.

김안서의 「화보5 - 싸리꽃」 전문

‘싸리꽃’은 여름에서 늦가을까지 산 언덕 위에 아주 작은 꽃잎을 가지고 진보라색으로 핀다. 싸리꽃은 대체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데, 그 쓰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단지 싸리꽃이 피어 있는 싸리나무 주변은 싸리꽃 향기와 꿀을 모으러 오는 벌들이 많이 모인다. 그렇기에 오히려 싸리꽃보다는 싸리나무가 유용하다. 싸리나무는 질기고 잘 휘어져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싸리미를 비롯하여 싸리다리, 싸리도시락, 싸리문, 싸리바구니, 싸리회초리 등으로 사용했다. 싸리는 ‘사리’에서 온 이름으로, 사리는 살림이나 생활의 옛말이라고 한다.

안서는 “이름모를 산골작에 나언제난노”와 같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난 것을 주목한다. “쫘다할가 하얀너름 날도점을고”라는 표현을 통해 ‘싸리꽃’이 피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싸리꽃은 7월에서 8월에 꽃이 핀다. “분홍비춘 이내맘이라” “웃음씩은 이내얼굴 엠브다해도”와 같이 싸리꽃의 색깔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말을마소, 속엔수심(愁心) 자네모르오”라고 하듯이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다른 것이다. 싸리꽃의 꽃말은 “수사(愁思)”, 즉 시름이나 상념 또는 사색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쌓이는 수심이다.

보람업다, 냉이꽃 길가에펴네.
하얀머리 열十字 모다밝히네.
이웃이라, 「사수라」 모양이곱고
건넌마을 모란꽃 호화로울세.

어느것은 貴엽고 貴치안타고
누구라서 니르노, 모다조흔길.
타고나니 棼分福 낸들어째오,
안즌방이 고희양 겸손인 것을.

되는대로 지내자, 別수잇는고.
벌과나비 허황해 미들길업고,
곳곳마다 바람은 들려노는걸.
어이하노, 냉이야, 혼자못살고.

김안서의 「화보10 - 냉이꽃」 전문

냉이는 이른 봄에 땅에 붙어서 자란다. 나물로 캐서 먹는 때가 지나면, 높이 10~50cm까지도 자라면서 줄기의 끝에서 5~6월에 흰색의 꽃

이 핀다. 들이든 밭이든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귀찮은 풀로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나물이 아닌 냉이꽃은 아무래도 천하게 보이기 쉽다. 이런 점에서 “건넌마을 모란꽃”과는 대비된다. 모란꽃은 “화중왕(花中王)”이라 하여 귀하게 대접을 받지만, 냉이꽃은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안서는 민중들과 친숙한 꽃을 찾아 그것을 노래했고, 「화보」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사쿠라’와 ‘벚꽃’을 같은 꽃으로 알기 쉽다. ‘사쿠라’가 ‘벚꽃’의 비표준어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서는 ‘사쿠라’와 ‘벚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실제로 사쿠라와 벚꽃은 전혀 다른 꽃이다. 즉 사쿠라가 일본에서 전파된 꽃이라면, 벚꽃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안서의 「사쿠라」에서 잘 보여준다.

피고보니 낮설은쌍 모다生疎코
내故郷은 「시끼시마」 바다건너라.
물길千里 나여기를 웨왓단말고
어이하랴, 이내속은 둘곳이업고.

「다다미」에 조희映窓 내살림이라,
「우에노」의 동무들아 너잘잇느냐.
어이잇노, 溫突窓에 노랑벚들제
지향모를 열여들엔 봄바람부네.

못보앗소, 山새들도 깃을뒀스다고
山을돌며 깃이그려 죄죄우는걸
누굴차자 물길千里 나여기왔노
외로운맘 둘곳업서 밤마다우오.

벚꽃의 종류는 많지만, 일본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꽃은 ‘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이다. 이것은 메이지(明治) 초기에 도쿄의 소메이(豊島區) 식목원에서 요시노 사쿠라(吉野櫻)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하여 후에 ‘소메이요시노’라고 명명된 교잡종이다. 경남 진해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균향으로, 경술국치(1910년) 이후에 매년 많은 ‘소메이요시노’ 묘목을 심었다고 한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가 된 것이다. ‘사쿠라’는 일본인이 사랑하는 꽃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다. 한때는 ‘사쿠라는 일본 꽃’이라는 인식이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방 후에는 진해를 제외하고는 서울의 창경궁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사쿠라’를 베었다고 한다.³⁴⁾ 안서는 ‘사쿠라’에 감정이입하여 ‘사쿠라’의 처지에서 시적 진술을 하고 있다. 즉 ‘사쿠라’는 바다 건너 낮은 땅에 와보니 모든 것이 생소할 뿐이다. ‘사쿠라’의 고향은 ‘시키시마’이고, ‘우에노’라는 지명을 언급한다. ‘우에노’는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台東區)의 우에노(上野)역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기이다. 안서는 1914년 일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문과에 진학했다가 1916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이 작품은 유학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외로웠던 마음을 ‘사쿠라’에 기대어 노래한 것이다.

안서는 사쿠라와 벚꽃을 달리 인식했기에, 따로 「벚꽃」을 노래한다. 여기서 ‘벚꽃’과 ‘벚꽃’의 표기는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벚나무’를 규범어로 보았고,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벚나무’를 규범어로 삼았다. ‘벚’은 버찌의 준말이

34) 시모카와 마사하루(下川正晴), 「수상: 사쿠라와 벚꽃」, 『한국논단』 189호, 2005, pp.137~138 참조.

다. ‘버찌가 달리는 나무’라는 뜻의 ‘버찌나무’가 벚나무가 된 것이다. ‘벚꽃’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벚나무는 꽃나무로 인식되지만, 순우리말인 벚나무란 이름에는 꽃과 관련한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벚나무의 한자는 앵(櫻)이며, 자작나무와 같은 글자인 화(樺)로도 나타낸다.”³⁵⁾라고 하는데, 『삼국유사』에 충담의 ‘앵통(櫻筒)’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3분의 2가 벚나무의 일종인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산벚나무는 산에 흔한 나무라는 뜻이며, 잎과 꽃이 같이 피는 것이 다른 벚나무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문일평도 “벚꽃이 조선에도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거의 그미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봄이 오면 저절로 피었다 저절로 질 뿐이요, 사람에게 일찍 애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³⁶⁾라고 기술한다.

벚꽃아, 가이엽다 어이할는고
 제살림 저살곳을 모다뺏기고
 쫓겨나니, 넓은들 갈곳이엿데.
 오늘도 외론몸에 날은점을고

집으로는 두家門 소박을마자
 偕老百年 中年에 갈린심이라,
 바람은 하늘하늘 나를달랜다,
 아모런들 이心誠 變할줄아나.

들처못볼 이맘을 불상타말게,
 가는歲月 한새는 맑아질것을.

35) 박상진, 『우리 나무 이름 사전』, 놀와, 2019, p.203.

36) 문일평, 『화하만필』, 삼성문화재단출판부, 1974, p.145.

곳이엿서 구름을 허맨다말게
저녁새엔 山마루 안자선다네.

김안서의 「화보15 - 벚꽃」 전문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벚나무는 앞서 언급한 산벚나무 외에도 벚나무 종류 중에서 꽃이 크고 가장 아름답다는 뜻으로 붙여진 ‘왕벚나무’와 꽃이 다른 벚나무보다 좀 일찍 핀다는 의미인 ‘울벚나무’가 있다. 그리고 능수버들처럼 늘어지는 ‘처진개벚나무(능수벚나무)’와 울릉도에서 자라는 ‘섬벚나무’도 있다. 이외에도 ‘개벚나무’나 ‘꽃벚나무’가 있다. 흔히 벚나무라고 하면, 평지에서도 가장 잘 자라는 왕벚나무다.³⁷⁾ 대체로 벚꽃은 개화 후 1주일 정도 지나서 만개하고, 이후에는 급속도로 꽃이 떨어진다. 즉 개화 후 10일 정도가 지나면 벚꽃은 지고, 푸른 이파리가 그 자리를 메운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꽃잎의 연약함으로 바람에 날리고 만다. 개화의 ‘반짝임’과 낙화의 ‘부서짐’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만끽할 시간은 너무나 짧다.

안서는 ‘소박맞은 여인’으로 벚꽃을 형상화하고 있다. 살림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난 외로운 몸은 어디에도 의존할 곳이 없다. 소박맞은 여인

37) 제주 왕벚나무는 자생하는 순수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1908년 프랑스 출신의 메릴 타케Emile Taquet 신부가 한라산 자락에 있는 관음사 뒤 해발 600미터 지점에서 채집한 왕벚나무를 당시 장미과의 권위자인 베를린 대학교 베른하르트 쾨네 Bernhard Adalbert Emil Koehne 교수에게 보내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이 최초로 밝혀졌다고 한다. 하지만 왕벚나무의 학명에는 우리나라 학자가 아닌 일본 학자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독일 유학을 하고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된 마쓰무라는 “일본 식물에 붙은 서양 학자들의 학명……외국인에 의해 식물 연구가 완성되었다”라고 탄식하면서 유럽인들이 식물 연구의 미개척지 일본에 뛰어 들었던 것처럼 조선과 중국에 눈을 돌렸던 것이다. 이윤옥,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인물과사상사, 2015, pp.172~173.

의 외로움과 변함없는 마음을 이 작품은 노래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이미 내재한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는 두가문(家門) 소박을마자 / 해로백년(偕老百年) 중년(中年)에 갈린심이라”와 같은 구절은 상당한 부분 비약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³⁸⁾

전통적으로 인식한 꽃과 개별 시인이 시적 체험을 통해 얻은 꽃에 대한 인식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는 늘 새롭게 창작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이 발생하게 된 연원을 찾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개불알꽃’이나 ‘머느리밑씻개’와 명칭은 일본말에 더럽혀진 우리 풀꽃에 관한 내용이다.³⁹⁾ 다음 논의를 위해서 『시경』의 「관저(關雎)」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

물 위의 노랑어리연꽃	參差荇菜
이리저리 흐르네	左右流之
아리따운 아가씨를	窈窕淑女
자나깨나 그리워하네	寤寐求之
찾아봐도 만날 수 없네	求之不得
자나깨나 그리워하네	寤寐思服
긴긴 밤 언제나 만날까	悠哉悠哉
잠 못 이뤘 뒤적이네	轉轉反側

38) 이를테면 안톤 체홉의 「앵화원」을 들 수 있다. 홍해성, 「명희곡(名戲曲)의 추억(其一)」; 안톤 체홉의 작 「앵화원」을 더듬어, 서연호·이상우 엮음, 『홍해성 연극론 전집』,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pp.177~181 참조.

39) 이윤옥, 앞의 책, p.6 참조.

물 위의 노랑어리연꽃	參差荇菜
이리저리 따왔네.	左右采之
아리따운 아가씨와	窈窕淑女
비파와 거문고 타며 다정하네	琴瑟友之
물위의 노랑어리연꽃	參差荇菜
이리저리 삶았네	左右芼之
아릿다운 아가씨와	窈窕淑女
북과 종 울리며 즐겼네	鐘鼓樂之

『시경』의 「관저」에 나오는 ‘행채(荇菜)’라는 식물은 ‘노랑어리연꽃’인데, 줄곧 ‘마름풀’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노랑어리연꽃은 물속에서 산다. 하지만 상당 부분 한국에서의 번역이 ‘마름풀’로 하였기에, 물에서 자란다고 생각하기 쉽다. 심지어는 사전에서조차도 ‘행(荇)’자에 대해, “마름풀 행, 조아기 행”으로 풀이하고 있고, 용례로 “행채(荇菜)”라는 말에는 “마름풀. 용(龍膽科)에 딸린 다년생 풀”이라고 한다.⁴⁰⁾ 하지만 굴만리(屈萬里)의 『시경전석(詩經全釋)』 「관저」의 주석은 “행(荇)을, “靑杏; 水生植物, 似葍, 可食, 故曰菜”라고 언급한다.⁴¹⁾ 이와 관련하여 『시경』에 대한 식물 해석에서 상당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한 논문과 저서가 있다.⁴²⁾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은 안서 김억의 「마름꽃」이다.

40) 장삼식 편저, 『대한한사전』, 박문출판사, 1975, p.1263.

41) 굴만리, 『시경전석』, 연경출판사업공사, 1983, p.5.

42) 남기수·고재기, 「『시경』 주남·소남 식물고」, 『대동한문학』 제11집, 대동한문학회, 1999, p.320. 및 팽철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문학 속의 동식물』,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pp.39~44 참조.

맑은못은 속깊흔 거울이랄가,
하얀구름 어린양 곱기도하다.
잔물살과 춤추는 이내그림자
물에서 물에서 사는양이라.

오가는길 물우에 얼굴비최고,
어찌잔 맑은색시 모양을보노.
가다가다 허황타, 바람일어나
물살지면 그나마 불결이엿고.

아름답은 한世上 물에태어나
아름답은 한世上 물로보낸다.
그대들은 말말게, 어이할는가,
떨어지면 이몸은 指向엿는걸.

김안서의 「화보17 - 마름꽃」 전문

마름꽃은 전국의 연못에서 흔하게 자라는 한해살이 물풀에 해당한다. 줄기는 가늘고 길며, 물속의 잎은 깃꼴로 가늘게 갈라진다. 그 명칭이 마름꽃인 이유는, 잎몸이 마름모꼴이기 때문이다. 안서 김억도 언급하듯이 “물에서 물에서 사는양이라” “아름답은 한세상 물에태어나,” “아름답은 한세상 물로보낸다”라는 표현을 통해 마름꽃의 생태를 알 수 있다. 물살이 잔잔할 때는 맑은 못을 볼 수도 있고, 그림자도 살필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일면 그나마 보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대체로 안서는 시적 자아를 여성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꽃이 가진 정서나 자신이 가진 정서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IV. 마무리

일상어의 주된 기능이 사람들 간의 의사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언어라면, 시의 주된 기능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언어이다. 프랑스의 발레리는 소통의 언어와 시적 언어로 구별되는 ‘소리와 의미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걷기와 춤을 대비(對比)한다. 걷는 행위나 춤을 추는 행위는, 같은 기관이나 같은 뼈, 그리고 같은 근육들을 사용하는 육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목표를 향해 걷는 길이라면, 춤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⁴³⁾ 의사소통에 사용되거나 시로 변형되는 언어는 같은 언어라도 달리 정리함으로써 다른 감정을 유발하도록 한다.⁴⁴⁾

안서는 『동이일보』의 「花譜」 연재를 통해 꽃을 소재로 시를 형상화한다. 여기서 안서는 소위 시가(詩歌)라는 것과 민중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화보」를 운문으로 창작한다. 한 행이 음수율 7(4·3, 3·4)·5조를 바탕으로 하고, 네 행이 한 수(首)를 이루며 삼수(三首) 또는 사수(四首)가 한 편의 작품이 되는 시형을 고안한다. 이 과정에서 한시의 오언절구나 칠언절구에서 볼 수 있는 한시의 압운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요의 정형성과 한시의 압운 형태를 결합한 새로운 시형을 실험한 것이다. 아울러 안서는 상당 부분 꽃말(花語)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형상화하려 하였으니, 작품은 관념에

43) 폴 발레리 지음, 박은수 옮김, 『시와 추상적 생각』, 『발레리 선집』, 을유문화사, 1999, pp.175~177.

44) 러시아 형식주의자 슈클로프스키는, 시 쓰기는 언어의 외줄타기 곡예이며 ‘발성기관의 춤’이라고 주장했다. 빅토르 어얼리치 지, 박거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파지성사, 1995, p.228.

머무를 수밖에 없다.

꽃말은 특정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류와 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꽃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안서가 「화보」에서 언급하는 꽃은 매화를 비롯하여, 안즌방이(제비꽃), 진달래꽃, 배꽃, 싸리꽃, 아네모네, 사쿠라, 포도꽃, 해바라기, 아카시아, 냉이꽃, 살구꽃, 민들레, 박꽃, 벚꽃, 코스모스, 복숭아꽃, 마름꽃, 부평초꽃, 우엉꽃, 상사꽃, 나팔꽃, 芍藥으로 총 23종이다. 안서는 당시 지식인으로서 민중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서에 맞는 시를 창작하려 했다. 그래서 대체로 민중들과 친숙한 꽃을 찾아 그것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안서가 형상화한 「花譜」를 통해 자칫 잘못 알기 쉬운 꽃, 이를테면 진달래와 철쭉(躑躅), 그리고 사쿠라와 벚꽃이 분명히 서로 다른 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경』의 「관저」에 나오는 ‘행채(荇菜)’는 줄곧 ‘마름풀’로 풀이해온 경향이 많다. ‘마름풀’로 번역하였기에 물에서 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런데 안서가 형상화한 마름꽃을 통해 마름꽃의 생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안서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노래인 민요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중 밖에서 바라보는 태도로 민요적인 시를 창작하려 한 것이다. 즉 꽃의 관찰을 통해 그 정서를 노래하기보다는 이미 자신이 가진 꽃에 대한 태도로 꽃을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제목으로 창작한 작품의 시형이 다른 것을 보면, 안서는 우리 정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시형을 마련하고자 시의 형식적 실험을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花譜」는 엄밀하게 한시의 압운에 맞지는 않을지라도 압운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안 지음, 이병훈 옮김, 『양화소록』(개정판), 을유문화사, 2010.
- 곽명숙, 「김억의 ‘조선적 시형’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55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p.263~290.
- 구인모, 「金億의 格調詩形論에 對하여」, 『한국문학연구』 제2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2, pp.263~294.
-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 김대행 편, 『운율』, 문학과지성사, 1990.
- 김수업, 『우리말은 서럽다』, 나라말, 2009.
- 김안서, 「花譜 1~22回」, 『東亞日報』, 1930. 2. 1. ~ 1930. 3. 29.
- _____, 「작시법(五)」, 『조선문단』 제11호, 조선문단사, 1925. 8.
- _____, 「작시법」, 『동아일보』, 1930. 2. 2., 4면 5~6단.
- 김 역, 「이론보다도문저작품을」, 『大潮』 3, 1930. 5. 15.
- _____, 『안서시초』, 박문서관, 1941.
- 김용직, 『김억작품집』, 형설출판사, 1982.
-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6.
- 남기수·고재기, 「『시경』 주남·소남 식물고」, 『대동한문학』 제11집, 대동한문학회, 1999, pp.317~348.
- 노자영, 『신인문학』 제1집, 청조사, 1937. 7.
- 문일평, 『화하만필』, 삼성문화재단출판부, 1974.
-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4.
- 박상진, 『우리 나무 이름 사전』, 놀와, 2019.
- 유박 지음, 정민 외 5인 옮김, 『꽃에 미친 선비, 조선의 화훼백과를 쓰다 화암수록』, Humanist, 2019.
- 서연호·이상우 엮음, 『홍해성 연극론 전집』,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 이운옥,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인물과사상사, 2015.
- 장삼식 편저, 『대한한사전』, 박문출판사, 1975.
- 조두현, 『한시의 이해』, 일지사, 1982.
- 조지형, 「관곡 김기홍의 시가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
- 車相瓚, 「花譜」, 『開闢』 제68호, 1926. 4. 1.

- 팽철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문학 속의 동식물』,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허미자, 「현대시의 압운에 대하여: 한국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
총』 1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0, pp.105~146.
- 屈萬里, 『詩經全釋』, 聯經出版事業公司, 1983.
- 시모카와 마사하루(下川正晴), 「수상: 사쿠라와 벚꽃」, 『한국논단』 189호, 2005,
pp.137~138.
- 빅토르 어얼리치 저, 박거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지성사, 1995.
- 폴 발레리 지음, 박은수 옮김, 『시와 추상적 생각』, 『발레리 선집』, 을유문화사, 1999.
- C. D Lewis, *Poetry for You*,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Abstract

A Study on 'Hwabo(花譜)' of Anseo Kim Eok in the Dong-A Ilbo『東亞日報』

Kim, Kwon-dong

All poems appearing in Anseo Kim Eok's '花譜(Hwabo)' show traces of creation with verse in mind. Like this, his poems, which he explores "the city is a cigar and the streets of the people," have a negative and regressive aspect. However, this is the focus on finding our poems and our emotions according to them.

Anseo Kim Ek-eok consciously sought to shape flowers into poetry through the series of "Pictures" of the "東亞日報Dong-A Ilbo". In "花譜2" and "花譜3", prose and poems are also published for "Plum blossom" and "violet," and "azalea flower". Through his prose, we can see how he perceives flowers, which does not deviate from the conventional perception of flowers generally known.

This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the 'flower language' that is sometimes revealed. In addition, poems from "花譜4" to "花譜23" are published. This effort to explore the "distance between the cigar and the people" eventually results in a "folk song poetry". His "folk song poetry" devised a form of poem, centering on Articles 7(8) and 5, with four lines as one piece and three or four pieces as one completed individual work. Even in this case, the traces of efforts to apply the rhyme of the time can be confirmed.

The work of grasping the meaning of the existing flower and imagining it as a poem cannot escape the concept. Above all, good works are not confined to good content in a good form, but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 in which the form becomes the content and the content becomes the form. In this regard, i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for Anseo's search for a form that fits our emotions. However, in that he wanted to limit the meaning of the existing flowers within the frame of the form of poetry he created, his poetry cannot escape the limit flowing into ideas.

Key Words : Anseo(안서), Kim Eok(김억), Hwabo(화보), the Dong-A Ilb(동아일보), the language of flowers, poem form.

김권동

소속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kimsiin@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